배은망덕이 불러온 비극 , 『탐정소설 청천벽력』

1841년 미국의 에드거 앨런 포(Edgar Allan Poe)의「모르그가의 살인」이후 본격화된 추리소설은 20세기 초 한국에 들어와 곧 크게 사랑받는 장르가 되었다. 한국 최초의 창작 추리소설인 이해조의 쌍옥적이 1908년으로 최초의 '신소설'인 혈의누가 1906년인 것을 생각하면 근대문학 초창기부터 추리소설이 큰 인기를 끌었음을 알 수 있다.

추리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서양에서 온 것인 만큼 초창기 추리소설은 서양이나 일본 등 외국 것을 번역·번안한 작품이 대부분이었다. 1920년대부터 외국 추리소설의 소개가 왕성해지는데, 에드거 앨런 포, 코난 도일, 모리스 르블랑, 아가사 크리스티, 에밀 가보리오 등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읽히기 시작한다.

이번에 소개하는 청천벽력도 추리소설의 왕성한 소개와 커다란 인기를 보여주는 추리소설이다. 제목 위의 '탐정소설(探偵小說)'이라는 츠노카키(角書)는 이 작품에 탐정이 등장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임을 예고한다. 1921년 처음 발행된 이 작품은 1895년, 1896년 프랑스 파리를 각각 시간적·공간적 배경으로 한다. 1896년 9월 15일 자정 경찰서로 걸려온 살인사건 신고전화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돈에 눈이 멀어 자기 은인을 살해하고 자신의 부인까지 죽게 만든다는 비극적인 줄거리를 갖고 있다. 총 75쪽밖에 안 되는 데다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. 프랑스 유명 귀족의 살인사건 자체도 흥미롭거니와 사건에 얽힌 은밀한 가정사, 완전범죄를 위한 범인의 다양한 트릭, 서술 시간의 역전과 빠른 장면 전환은 작품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 없게 한다. 제목의 탐정은 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, 서사 규모나 인물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장편을 축약해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.

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몇몇 지명이 현지 이름으로 나오지만, 김창열이나 안광필, 이상대 등 등장인물들은 우리 식으로 고친 '번안'소설이다. 아쉽게도 현재로선 원작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고, 옮긴이인 김천희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거의 없다.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, 김천희는 강능추월(1928), 유충렬전(1929) 등 몇몇 고전소설 발행에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. 필사본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 확실하다. 한국근대문학관이 소장한 책도 초판 발행 3년 후인 1924년에 나온 재판이다. 현재 총 3책이 확인되는데 두 책이 인쇄본(딱지본)이고 한 책은 필사본이다. 필사본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딱지본으로 인쇄된 두 책은 각각 한국근대문학관과 동덕여대가 소장하고 있다.

한국근대문학관 학예 연구사 함태영